

Gary Yates 박사, 예레미야, 강의 9, 예레미야 2, 이스라엘과 주님의 논쟁

© 2024 게리 예이츠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예레미야서 강의를 진행하는 Dr. Gary Yates입니다. 이것은 9과, 예레미야 2장,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논쟁하시는 내용입니다.

최근 세션에서 우리는 예레미야 1장과 예레미야 2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예레미야서 전체, 52장을 형성하는 장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무엇이 있는지 잘 파악하면 동일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 미안해요. 나한테 맡겨줘, 알았지? 괜찮은. 좋아요. 난 괜찮아. 좋아요. 모든 것이 좋다. 괜찮은.

이전 섹션에서 우리는 예레미야서 1장과 2장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나는 이것이 예레미야서 연구를 위한 형성적인 장이라고 믿습니다. 예레미야 1장과 선지자의 부르심은 실제로 이 책 전체에 걸쳐 전개될 주제를 소개합니다. 그런 다음 예레미야서 2장 1절부터 4장 4절까지의 시작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시작 메시지는 책의 줄거리를 소개합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불충실한 아내입니다. 예레미야의 삶에 관한 이야기, 이야기, 설교, 시, 산문 등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포로 생활로 데려가시고 궁극적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망가진 이 망가진 곳을 고치실 것인지에 대한 복잡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관계. 우리는 은유와 비유, 하나님의 불성실한 아내로서의 이스라엘의 이미지, 그리고 그것이 이 책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선지자들은 단지 사실을 알려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로 우리의 감정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메시지를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주님이 느끼시는 고통, 분노, 배신감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또한 우리가 이스라엘의 죄의 타락함과 그들이 주님을 배반한 의미를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선지자들이 매우 효과적인 은유와 이미지와 함께 제가 선지자서를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된 또 다른 것 중 하나는 선지자서에 나타나는 문학 장르, 문학적 형식, 방식을 더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2장의 내용 중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신문이 도착할 때, 또는 온라인에서 모든 인쇄본을 읽든 우리는 신문에 있는 문학적 형식을 이해하기 때문에 실제로 장르 비평을 연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이온스가 신시내티를 침공했다는 헤드라인을 보고 이에 대해 경고하기 위해 오하이오 주 경찰에 전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포츠 헤드라인입니다.

내가 영화광이거나 TV 중독자라면 영화 목록이나 TV 가이드를 읽는 방법을 알고 있고 그것이 나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능숙합니다. 대통령의 정책이 실패했다는 기사를 신문 중앙에 보면 그것이 의견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것은 사실이고 정확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나는 문학적 형식과 장르, 그 신문의 작가들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바탕으로 민감한 방식으로 신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지자들의 문학적 형식을 이해한다면 그들이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사로서, 목회자로서 문학 장르를 이해하면 본문의 개요와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이를 분해하고 싶은 방식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문학 형식, 문학 장르는 우리가 한 구절을 읽을 때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작가가 말하려는 내용을 전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선지자를 연구한 사람들과 이를 행한 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선지자의 장르를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심판의 장르와 구원의 장르가 있는데, 그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예언적 심판 연설을 간단히 심판 신탁이라고 합니다. 선지자들의 심판 연설에는 두 가지 주요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발도 있고 발표도 있습니다.

고발, 이스라엘이 저지른 범죄의 구체적인 목록, 심판 연설의 대상이 하나님께 범한 죄. 따라서 Lo ken이 자주 소개하는 이 발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 형벌을 내리시기 위해 행하실 구체적인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2장에는 분명히 심판 연설이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유다는 여호와와 불충실한 아내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로 그분께서 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그들에게 내리신 심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 장차 그들에게 내릴 심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선지자들은 기본적인 판단 연설을 취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선지자들은 예언적 심판 연설의 시작 부분에 화라는 단어를 추가할 것입니다.

히브리어 단어는 오이(oi)이고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화(woe)로 번역되었습니다. 아가씨야. Net Bible은 이러한 신탁을 번역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 이유는 비애 신탁, 비애라는 단어가 죽음 및 장례식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흔히 남겨진 사람이 애도하며 이 사람이 불쌍하다, 혹은 비통하다라고 말하며 죽음에 대한 슬픔과 슬픔을 표현하곤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야김의 죽음을 알릴 때 그가 말한 것 중 하나는 여호야김에게 화가 있다고 선언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죽어서 기뻐할 거예요. 그러므로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화 있을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심판 연설을 소개했을 때 그는 다가오는 장례식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분은 이스라엘이 그 길을 바꾸지 않으면 죽은 것과 다름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 장례식장에 가는 꿈을 꾸는 것을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관 속에 누가 있는지 보고 싶군요. 누구입니까? 당신은 앞으로 걸어가면 거기에서 당신 자신의 이미지를 보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을 그들의 장례식에 부르고, 여러분이 길을 바꾸지 않으면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임을 상기시켜 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유형의 예언적 심판 연설이 예레미야서 2장에서 확실히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장르 중 일부는 이 장에서 함께 통합될 것이며 언약 소송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9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아직도 너희와 대적하노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esv에서 논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리베(Rive)인데, 이는 논쟁,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선지자가 사람들을 법정으로 데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검찰관이다.

주님은 심판관이십니다. 국민이 피고인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형사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언약 소송에서는 몇 가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 번 선지자는 증인들을 법정으로 불러들일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여기에는 정식 법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증인을 데려와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과거 관계에 대한 리허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장 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나에게서 무슨 잘못을 발견하여 나를 멀리 떠났느냐? 지난 언약의 리허설이 있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은 백성들의 불신실함과 대조됩니다.

이사야 1장에서 주님은 내가 자녀를 키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자녀를 키웠으나 그들이 나에게 반역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와

주님과의 언약이 반복되면서 사람들의 불성실함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들이 저지른 범죄의 구체적인 목록, 다시 한 번 고발, 기소가 재판 환경에서 제시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침내 판결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그들의 길을 바꾸고 회개하도록 하는 심판 또는 촉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법정에 들어가는 법정 장면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피고인이었을 때 이 일을 한 번만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666번 국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나는 역주행 혐의로 주 경찰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길의 반대편에서 운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법정에 들어가야 했다.

나는 판사에게 대답해야 했다. 그것은 험박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법정에 들어가서 판사이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의미에서는 예레미야 2장이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법정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저는 법적 절차에 대해 잘 모릅니다.

저는 로스쿨을 다닌 적은 없지만, 검사가 판사를 위해 일할 때 판사와 피고인, 또는 판사와 검사가 같은 팀에 있으면 피고인이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예레미야 2장의 법정 배경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선지자는 공식적으로 그들의 여호와께 대한 불순종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장의 뒷부분에서 주님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법정으로 데려가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화관을 가지고 계시는데 백성들이 항의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화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느니라. 심판의 메시지와 관련된 또

다른 예언적 장르는 예레미야 2장에도 논쟁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정에서 들어갈 때마다 사건을 증명하기 위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선지자를 사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고 사람들에게 그들이 정말로 죄가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고 계십니다. 나는 예언적 논쟁의 좋은 예가 에스겔 18장에서 발견된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심판의 때에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해 온 잠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들은 신 포도를 먹었다고 하는데, 이가 시는 것은 자식들이다. 즉, 그 속담의 의미는 우리 조상들이 신 과일을 먹었으나 그 쓴 맛과 이가 시큼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언약을 어겼고 우리는 그 결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은 이 상황에 대한 그들의 이해가 절대적으로 잘못되었음을 그들에게 확신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그들에게 설명할 것입니다. 사악한 아버지는 의로운 아들에게 형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또는 의로운 아버지가 악한 아들을 하나님의 형벌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말하자면, 여러분의 조상은 악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당신이 죄를 짓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으므로 자녀의 이가 시다'는 속담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사람은 자신의 행동과 행동에 따라 죽거나 살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궁극적으로 선지자가 옳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확신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장에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불성실한 신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계속해서 불신앙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백성은 돌아와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말라기서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일련의 논쟁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였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그래서 선지자는 이스라엘, 유다는 불충실한 아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불성실한 아내입니까? 예레미야 2장은 그것을 설명하고 선지자의 주장을 사람들에게 확신시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논쟁을 생각하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 상상해 볼 때가 있다. 내가 어려운 주제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에 관해 설교할 때면 청중석에 서너 사람이 앉아 있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는 제가 말하는 것을 믿지 않는 확고한 회의론자가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 어떤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 중 한 사람이 생각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 이건 어떡하지? 아니면 그건 어때요? 그리고 실제로 효과적으로 전파하려면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내용에 반대할 것인지 예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와서 유다에게 말하기를 너는 불충실한 아내니라. 게다가 당신은 매춘을 했습니다.

당신은 간음을 범했습니다. 당신은 다리를 벌리고 모든 푸른 언덕 아래와 도시의 모든 높은 곳에서 당신을 광고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별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약에서도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 8절과 9절에서 야고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신약성경의 맥락에 있습니다.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비참하고 애통하며 울어라.

그리고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일요일 아침에 여러분이 주님을 대적하여 매춘을 했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중은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나는 한 학술회의에서 예언적 이미지와 이스라엘이 불성실한 매춘부라는 전체적인 개념에 관해 발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한 교수는, 왜 오늘날 목사들이 사람들과 대화할 때 이런 종류의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좋은 학문적 답변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목회자로서의 나의 실용적인 대답은 그들이 직업을 유지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매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것을 별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성을 구약성서의 궁극적인 악의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에 비교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그 메시지를 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사마리아의 부유한 여자들에게 말하면서 그들을 바산의 살찐 소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제가 일요일 아침에는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지 않는 내용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습니까? 그럼 예레미야 2장에서는 언약 소송과 논쟁의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기소된 대로 유죄임을 확신시키기 위해 무엇을 하는가? 우리가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선지자가 하는 일 중 하나는 비유적인 표현과 은유를 광범위하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 세션에서 그 중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다시 설명하고 싶지는 않지만 방금 간략하게 다루었던 몇 가지 사항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2장 3절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첫 열매로 언급됩니다.

그들은 그에게 속했고 그에게 헌신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처음 익은 열매를 먹거나 삼키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분에게서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삼키기 위해 적군을 보내셨습니다. 2장 24절 그들은 마치 더위 속에 있는 들나귀 같으니라. 그들은 우상 숭배로 스스로를 타락시켰습니다.

2장 34절, 핏자국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2장 20절과 33절은 우리가 이미 꽤 많이 이야기한 창녀의 이미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더위 속에 있는 동물이라는 생각은 5장 8절과 9절에도 그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선지자는 그곳의 사람들을 묘사합니다. 그들은 배불리 먹고 튼튼한 종마였으며 각각 이웃의 아내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내가 이런 일로 그들을 벌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와의 말씀 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민은 기본적으로 이성을 잃고 정욕에 완전히 사로잡힌 동물로 묘사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레미야 2장에서 저에게 가장 눈에 띄는 이미지와 은유 중 하나는 13절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예레미야에 대해 누군가가 기억했으면 하는 핵심 구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고 하였느니라.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느니라. 하나님은 생수를 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영혼을 만족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는 당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이 찾고 있는 안전을 제공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웅덩이를 판 터져서 물을 담지 못할 웅덩이를 팠습니다. 우리는 다른 세션에서 이에 대해 간략하게 다루었지만, 이스라엘 땅에는 5월부터 9월까지 비가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건기이므로 땅에 물을 공급할 수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때때로 그들은 자연 암석을 사용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수조는 종종 갈라지고 물이 새어나옵니다. 따라서 몇 달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물 공급이 끊긴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상송배입니다. 당신을 돌보고, 당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며, 인생을 이해하도록 돕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갈라진 수조입니다.

그리고 결혼, 불신, 불성실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서 2장에 나오는 주님과 선지자는 그들이 다른 나라들과 맺은 동맹과 군사 연합을 비교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그것을 간음에 비유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이 단지 정치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단지 실제적인 것입니다. 당신은 동맹을 맺고 이 군대와 함께 당신의 군대에 합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동맹을 맺음으로써 다른 나라들과 간음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는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독점적 특권을 포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그 나라들, 즉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그들의 신들에게 충성을 바치는 과정에 이르렀습니다. 유다 역사 초기에 아하스는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었을 때 아시리아 사람들의 예배 관습을 모방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 아시리아 제단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를 신뢰하는 것은 그들의 신을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와 은유는 2장 18절의 본문에 스며듭니다. 주님은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나일강 물을 마심으로써 무엇을 얻느냐? 아니면 유프라테스 강물을 마시러 앗수르로 가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자, 정말로 강물을 마시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미지는 이러한 다른 국가와 정치적 동맹을 신뢰하는 것이 그 국가의 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결혼 문제와 여기의 전체 우상 숭배 문제에 비추어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간음한 여인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잠언 5장 15절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그는 네 샘물을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구절에는 간음죄가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들의 관계에서 그들에게 공급하신 물을 마시는 대신에 그들은 다른 곳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장 13절에 물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생수를 버리시고 갈라진 웅덩이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다가 2장 18절에서는 음란한 남자나 음녀와 같이 배우자가 주는 물 대신에 가서 다른 샘물을 마셨느니라.

그래서 선지자는 이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그들이 유죄임을 확신시키기 위해 할 두 번째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 설정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선지자가 하려는 두 번째 일은 그가 일련의 수사학적 질문을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Walter Brueggemann은 예레미야서 전반에 걸쳐 수사학적 질문이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선지자가 그의 메시지를 설교하는 동안 청중은 멈춰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그들이 말로 대답하기를 기대하지 않지만, 그들이 이것을 마음에 새기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2장에 나오는 몇 가지 수사학적 질문을 들어보십시오. 주님은 5절 시작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이 나에게서 무슨 잘못을 발견하여 나를 멀리하였느냐? 나는 알고 싶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외면하게 만든 것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들이 이것에 대해 정말로 생각할 때 그들은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신실하셨기 때문입니다.

2장 10절과 11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종 자신들이 주위의 이방 나라들보다 우월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선지자가 하는 일을 들어보십시오.

그는 키프로스 해안으로 건너가서 보거나, 게달을 보내어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세요. 당신은 당신이 다른 나라보다 낫다고 생각합니까? 가서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한 나라가 신이 아닌데도 신을 바꾼 적이 있습니까? 내 말은, 고대 근동의 어떤 나라가 자신의 지리적 영역에서 보호와 축복을 베푸는 국가 신에 대한 충성을 포기하고 다른 신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까? 그러나 그는 내 백성이 그 영광을 무익한 것으로 바꾸었다고 말합니다. 내 말은, 우상과 거짓 신을 숭배하는 나라는 그 어떤 나라도 자기들의 신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내 백성이 그들의 영광 곧 여호와와 영광을 무익한 신들로 바꾸었느니라. 2장 17절. 유다에게 당한 모든 재앙과 그들이 당한 모든 일과 예레미야 이전에 북왕국이 포로로 잡혀감은 이것이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인도하심을 떠나 네게 임한 것이 아니냐 방해가 돼? 좋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버렸고, 이러한 비참한 상황을 스스로 초래했습니다. 2장 28절. 네가 너를 위하여 만든 신들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네 환난 때에 너를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나게 하라.

유다여, 네 성읍이 많으니 네 신도 그러하니라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러한 다른 국가들은 종종 특정 도시나 지리적 영역과 매우 구체적으로 연관되는 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그 거짓말을 받아들였고 그들은 도시가 있는 만큼 많은 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디에 있나요? 그들은 어떤 종류의 보호를 제공했습니까? 여기서 비용 효과적인 분석을 해보고, 이 신들을 숭배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장 32절. 처녀가 그 장식품을 잊겠으며 신부가 그 옷을 잊을 수 있겠느냐? 그 글을 읽으면서 제게는 10대나 젊은 성인인 두 딸이 있는데 그 딸들은 신부들이 이 모든 관심을 기울이는 리얼리티 쇼인 'Say Yes to the Dress'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신부를 위해 수백, 수천 달러를 지출합니다.

결혼식 날 신부가 웨딩드레스를 잊어버릴까요? 그녀가 사준 아름다운 드레스 대신 청바지를 입고 나타날까요? 당연히 아니. 그러나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백성은 셀 수 없는 날 동안 나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수사적 질문을 통해 훌륭한 검사는 계속해서 돌아와 모든 방법으로 자신의 사건을 계속해서 압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 그들이 매우 공격적이고 대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생각하고 반성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는 정말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주님에게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수사학적 질문뿐 아니라 이미지와 은유도 사용할 것입니다.

세 번째 장치는 예레미야입니다. 검사로서 그는 논쟁을 벌이고 자신의 사건을 압박하면서 유다 사람들의 말을 인용할 것입니다. 이제 미국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증언이 너무나 치명적이어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보호받습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하려는 일은 백성들이 스스로 증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의 말과 증언으로 그들은 스스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의 증언을 볼 때 그리고 여기 기록을 볼 때 우리가 보게 될 것은 그들이 종종 자신에 대해 매우 상충되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청중의 인용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부정하지 아니하고 꾸러미를 좇지 아니하였다고 말할 수 있느냐? 선지자가 그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네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창녀처럼 몸을 굽혔다고 했습니다.

23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부정하지 않다. 나는 베일을 좇지 않았습시다.

그들은 자신들의 결백을 항의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두 절을 내려가겠습니다. 25절 중간에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이방인을 사랑하였으니 가망이 없다고 말하였으니 나는 그들을 따라 가리라 그리고 여기에서 그들은 스스로를 무력한 색정광 환자로 묘사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도울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방인과 이방 신을 따르는 데 중독되어 있습니다. 23절, 나는 꾸러미를 쫓지 아니하였노라. 25절, 나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해야 합니다. 27절, 두 절 뒤에는 나무더러 당신이 나의 아버지라 하시며 돌에게 나를 낳았느니라. 우상 숭배와 그곳에서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35절에서 우리는 항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당신은 내가 의롭다고 말하고 있으니 그분의 진노가 나에게서 떠났구나. 우리가 유죄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결백 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화를 내실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는 너희를 심판하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전체를 통해 우리가 보게 될 것 중 하나는 사람들이 주님께 온갖 잘못된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44장, 유다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한 마지막 말, 우리는 이방 신들에게 한 서원을 계속 지키겠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를 읽어나가다가 궁극적으로 31장부터 33장까지의 회복 부분에서 그들이 울면서 주님께 나아와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할 것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언약을 어겼고,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2장을 보면, 그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당신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백합니다.

우리는 꾸러미를 쫓지 않았지만 여전히 상충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들은 나무에게 당신은 나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돌이 되어 당신이 나를 낳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도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신들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그들을 저주하고 유죄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 자신의 상충되는 인용문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지자가 이 구절에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죄를 확신시키기 위해 사용할 다른 방법 중 하나는 말장난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종 선지자들이 설교할 때 이러한 메시지를 구두로 설교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종종 시를 평행선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지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종종 미묘한 말장난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말장난이나 그런 종류의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장, 예레미야서 2장에는 제가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은 몇 가지 말장난이 있습니다. 2장 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구절을 살펴보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들이 나에게서 무슨 잘못을 발견하고 나를 멀리 떠났느냐? 그리고 마지막 줄에 그들은 무가치함을 추구했습니다. 거기의 히브리어 단어는 hevel, vanity입니다. 전도서에 나오는 헛되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다른 신들을 쫓아도 헛된 일을 하여 쓸모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hevel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헤벨, 바람, 즉시 증발하는 솜사탕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그들이 숭배하는 것과 닮아갔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헤벨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기본적으로 동일한 개념을 바탕으로 한 또 다른 말장난이 2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은 주님이 어디에 계시느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나를 알지 못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의 문제입니다. 목자들이 나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말장난이 나옵니다.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했는데, 히브리어로는 바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을 쫓았습니다. 거기에 사용된 동사는 야알입니다.

그리고 바알과 야알 사이의 말장난, 그곳에서 나오는 매우 가깝고 비슷한 소리는 그들에게 바알이 실제로 무엇인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그는 무가치한 신이다. 그들은 그가 폭풍의 신이라고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축복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번영을 가져다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니요, 그분은 당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만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상과 그 말이 너무 중요해서 2장 11절에서 다시 반복됩니다. 어떤 나라가 신이 아니더라도 그 신들을 바꿨습니까? 그러나 내 백성은 그들의 영광을 바꾸었습니다. 이는 Yaal에게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야알 사이의 말장난으로 그들은 헤벨을 숭배했고, 그들은 헤벨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이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는 단순히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보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신뢰하고, 봉사하고, 사랑을 주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헌신하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역효과를 낳는 방식입니다. 결국은 실망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제 예언적 말장난의 또 다른 예는 또 다른 예언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의 포도원 노래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저는 이것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불성실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원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이 노래에서 여호와께서 좋은 포도 곧 아누빔을 구하셨으나 그 대신에 시큼한 들포도를 얻으셨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그의 백성에게서

미쉬파트와 정의를 찾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그가 그들에게서 얻은 것은 유혈과 폭력인 미쉬팍(mishpak)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이 그들에게 투자하신 모든 것으로 인해 그들이 의를 이루기를 기대하셨다(시드카). 그러나 그 대신에 그가 자기 백성에게서 얻은 것은 시드카였습니다. 그것은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방식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단어를 통해 제시된 요점은 매우 효과적으로 연주되며,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투자한 것에서 기대했던 것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투자하실 때 보답을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간과 노력 끝에 그가 생산한 것을 얻는 대신, 그는 정반대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장의 요점도 매우 비슷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모든 면에서 복을 주시어 그들을 비옥한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어떤 잘못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행한 일은 그 모든 것을 빼앗아 무가치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궁극적으로 예레미야서의 이 부분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에 이르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송의 결론인 여기서 메시지는 첫째, 유다가 절대적으로 유죄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의할 수도 있고, 원하는 대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결백합니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언약을 어겼고, 주님을 배우자로 노골적으로 속였습니다. 그들의 죄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처음부터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예레미야서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와 맹렬한 진노는 그가 하겠다고 말씀하신 일을 이루기까지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이 심판이 오기 전에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선택이 무익하다는 것을 이해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상 숭배의 공허함을 이해하게 된다면, 우상 숭배가 단지 잘못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바알을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상숭배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무엇이든 신뢰하는 것이 보안의 궁극적인 원천입니다.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 전체에 걸쳐 이 장의 수사법, 즉 이 장의 요점은 우상 숭배가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다른 것을 신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당신에게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2장 13절에도 그들은 물을 담지 못할 터진 옹덩이를 팠습니다.

예레미야 2장의 두 부분에서 전반부는 18절에서 시작하거나 끝납니다. 그리고 다시 이 구절은 그들이 어떻게 이방 신들과 함께 이방 동맹을 쫓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일강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아니면 유프라테스 강물을 마시러 앗수르로 내려가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여기에는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는 2장의 후반부에서도 같은 생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36절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길을 얼마나 바꾸려고 합니까?

어느 날 당신은 이 사람들과 동맹을 맺습니다. 당신은 저번에 이 사람들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너희가 앗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받은 것 같이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라 하였느니라 또 네가 두 손으로 네 머리를 싸매고 그것에서도 떠나가리니 이는 네가 의뢰하는 자들을 여호와께서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이 구절에는 그들의 우상 숭배와 그것의 무익함을 정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 신들을 숭배하는 나라들과 가담한 정치적 동맹의 무익함에 대한 진술로 괄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의 첫 번째 부분은 '너희가 어찌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느냐'로 끝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앗수르로

내려가느냐? 그리고 이 장의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이집트와 앗시리아에게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동맹을 맺고 있는 이 국가들은 실제로 여러분의 형벌을 집행할 국가입니다. 그러니 이르지 마세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마십시오.

2장 3절에도 헛된 개념이 나옵니다. 주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을 그의 첫 열매로 대하셨습니다. 그것들은 전적으로 그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산을 먹는 자, 곧 이스라엘을 만지는 자마다 하나님이 그것을 삼키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주님에게서 돌아섰을 때 주님께서 그의 손을 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더 이상 그들을 첫 열매로 보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적들에 의해 속박과 억압에 예속된 노예가 되었습니다. 2장 7절에서 주님은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의 열매와 아름다운 것을 누리게 하였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 모든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구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들어와서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가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좋은 곳을 망쳤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는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포효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도시들은 주민이 없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대조되는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너희가 들어와 성읍과 집과 포도원과 농작물과 이 모든 것을 누리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짓지도 심지도 아니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알에게 의지하고 바알이 그들의 안전의 원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으로써 그들은 결국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습니다. 2장 2절은 그들이 광야에서 주님을 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 31절에서 주님은 그들에게 “어찌하여 내가 이스라엘의 광야가 되었으며 흑암의 땅이 되었나이까?”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의 시작 부분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서는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그들을 먹일 것이 만나에 의존하고 있던 깊은 흑암의 땅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돌아섰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광야와 캄캄한 땅이 되셨습니다. 이 장 전체를 통해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들이 내린 선택이 헛됨을 볼 수 있도록 도우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2장 27절, 다시 우상 숭배 문제로 돌아가서, 당신이 나무더러 당신은 나의 아버지라 하고, 돌더러 나를 낳았다 하느니라.

그런데 너희 신들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당신을 어떻게 구해줄까요? 그 결과, 우리는 주님께서 단지 자신의 백성을 법정으로 데려가 그들에게 형벌을 선고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주님은 궁극적으로 그들이 그들의 길을 바꾸도록 사람들을 법정으로 데려오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의 백성과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법정으로 데려가실 때 종종 그런 일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미가 6장에서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나요?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이 모든 호화로운 희생입니까? 그것도 우리 몸의 첫 열매인데, 그걸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여러분의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는 사람들을 법정으로 부릅니다(이사야 1장).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반항적인 자녀들을 양육하셨고 양육하셨습니다. 그는 그들을 키웠다. 그는 그들에게 충실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반역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님은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이에 대해 주님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율법에는 반역하는 아들을 죽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 연설이 끝나고 재판 장면이 끝날 때 주님은 이제 와서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죄가 붉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눈과 같이 희게 하기를 기뻐하노라. 당신은 피로 덮여 있습니다. 당신은 유죄입니다.

판사가 내가 당신에게 형을 선고하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전에 내 방에서 만나자. 함께 추론해 봅시다.

너희가 길을 바꾸면 내가 너희를 살려 주고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여기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을 법정으로 데려갑니다.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이스라엘이 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불성실한 아내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간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 행위의 헛됨을 알고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그들을 심판에서 면하게 하리라. 예레미야 2장의 법정 장면은 예레미야서 전체가 다루고 있는 투쟁, 즉 예레미야서 전체의 줄거리를 실제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유다가 회개하지 않을 때, 유다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을 때, 그들이 그들의 길을 바꾸지 않을 때, 궁극적으로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처음에는 그들이 법정에 와서 판사의 방에서 판사를 만나고 궁극적으로 그들의 길을 바꾸고 판결에서 면제될 기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서 강의를 진행하는 Dr. Gary Yates입니다. 이것은 9과, 예레미야 2장,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논쟁하시는 내용입니다.